

두 자녀 가정 대학생의 형제자매관계 특성

장 휘 숙*
충남대학교 심리학과

이 연구는 2명의 자녀가 있는 가정의 남녀 대학생들(492명)을 동성과 이성 형제자매로 구분하고 성별과 성구성(동성/이성)에 따라 형제자매관계의 온정과 갈등에서 차이가 있는지, 온정과 갈등은 다섯 가지 성격특성 및 어머니와 아버지 에 대한 애착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그리고 성별과 성구성, 성격특성, 어머니와 아버지 에 대한 애착은 온정과 갈등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규명하였다. 연구결과 온정에서는 성차가 없었으나 갈등에서는 여성들이 남성들보다 더 크게 경험하였고, 동성 형제자매들은 이성 형제자매들보다 더 큰 온정을 경험하나 갈등에서는 차이가 없었다. 또한 온정은 외향성, 호감성, 성실성 및 경험에 대한 개방성과 정적 상관을, 정서적 불안정성과는 부적 상관을 나타내고 갈등은 호감성 및 성실성과는 부적 상관을, 정서적 불안정성과는 정적 상관을 나타내었으며, 어머니와 아버지 에 대한 애착은 온정과 정적 상관을, 갈등과는 부적 상관을 나타내었다. 위계적 회귀분석 결과, 동성 형제자매일수록 높은 외향성과 호감성 및 어머니에 대한 높은 애착을 지닐수록 더 온정적 관계를 경험하고, 여성일수록 낮은 호감성 및 높은 경험에 대한 개방성을 지닐수록 더 갈등적 관계를 경험한다고 예측할 수 있었다.

주요어: 형제자매, 동성 형제자매, 이성 형제자매, 성격특성, 애착

형제자매관계는 각 개인이 스스로 선택한 관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른 어떤 관계보다 더 오래 지속되는 특징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제자매들은 성인기에 이르면 스스로의 선택에 의해 소원해지고 서로 만나지 않을 수도 있는 독특한 관계를 형성하기도 한다. 최근 증가된 기대어명은 과거보다 더 오래 동안 형제자매관계가 유지되게

하지만, 가족크기의 감소나 한자녀 가족 혹은 무자녀 가족의 증가 현상은 형제자매 유대를 경험하지 못하게 할 수도 있다.

흥미롭게도 형제자매관계의 질적 특성은 개별적 형제자매들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인다. 어떤 형제자매들은 매우 가깝고 애정적인가 하면 지극히 갈등적이거나 소원한 형제자매들도 있다. 그 이유는 무

* 교신저자: 장휘숙, E-mail: hsjang@cnu.ac.kr

* 이 논문의 일부는 2009 한국심리학회 연차학술회에서 발표되었음.

엇일까? 온정/긍정성 그리고 갈등·경쟁/부정성의 양가적 특성을 포함하는 형제자매관계(Dunn, Stocker, & Plomin, 1990; Stocker, Lanthier, & Furman, 1997)는 형제자매의 성별이나 출생순서 같은 가족구성변인들을 포함하여 여러 요인들의 영향을 받는다. 아동기 형제자매관계를 연구한 Furman과 Lanthier(1996)는 형제자매들의 특성은 크게 가족구성변인들과 아동의 인지적, 사회적, 성격특성 같은 개인적 특성들 그리고 부모-자녀관계를 포함하는 가족관계의 영향을 받는다고 주장하였다.

Furman과 Lanthier(1996)가 주장한 세 가지 요인들 중에서 가족구성변인들은 이 분야의 초기 연구자들(Ernst & Angst, 1983; Dunn, Slomkowski, & Beardsall, 1994; Furman & Buhrmester, 1985)이 주로 관심을 가졌던 연구주제로서 그들은 아동의 성과 성구성 혹은 연령차이들이 형제자매관계의 온정이나 친밀성 혹은 갈등이나 경쟁과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연구하였다. 최근 가족구성변인들이 성인이나 노인 형제자매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연구한 결과들(Connidis, 2001; Spitze & Trent, 2006)은 여성들이 남성들보다 형제자매에 대해 더 가까움을 느끼고 더 사이좋게 지낸다고 보고한다. 전통적으로 여성들은 가족모임을 조직하고 가족연결망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가족관계의 수호자들이기 때문에(Eriksen & Gerstel, 2002), 여성들은 남성들보다 형제자매들과 더 가까운 관계를 유지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여성들은 남성들보다 형제자매관계에서 갈등이나 경쟁도 더 많이 경험한다는 보고도 있으므로(Stocker, Lanthier, & Furman, 1997), 대학생들의 형제자매관계에서도 동일한 결과가 나타나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 다른 가족구성변인으로서 자매, 남매, 형제와 같은 형제자매관계의 성구성도 형제자매관계의 질

적 특성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아동기 형제자매관계를 연구한 Furman과 Buhrmester(1985)는 동성의 형제자매들이 이성의 형제자매들보다 더 가까운 관계를 유지한다고 보고하였고 대학생과 대학원생들을 대상으로 현재의 형제자매관계는 물론 아동기 형제자매관계를 질문한 Riggio(2000)도 동일한 결과를 제시하였다. 그는 소녀들은 남자 형제보다는 여자 형제를 더 긍정적으로 지각하고, 소년들은 여자 형제보다 남자 형제들을 더 긍정적으로 지각한다고 보고하여 동성의 형제자매들이 이성의 형제자매들보다 더 긍정적 관계를 유지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물론 그 반대의 결과를 보고하거나 차이가 없다는 연구도 있기는 하지만(Minnett, Vandell, & Santrock, 1983; Teti & Ablard, 1989), 소년들을 포함하는 쌍이 소녀만을 포함하는 쌍보다 더 많은 갈등을 경험한다는 연구도 있는가 하면, 동성 형제자매들이 더 많이 갈등한다는 연구도 있다(Bedford, 1995; Stocker & Lanthier, 1997). 그러나 형제자매의 성별이나 성구성과 같은 가족구성변인들은 형제자매관계의 질적 특성을 거의 설명하지 못하거나 설명한다고 할지라도 매우 적은 변량을 설명하기 때문에(Furman & Buhrmester, 1985; Stocker & Lanthier, 1997), 형제자매관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가족구성변인 외에 개인적 특성이나 다른 관계 변인들을 연구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개인적 특성 중 성격특성은 형제자매관계의 질적 특성과 연합된 대표적 요인으로 자주 보고된다. 아동을 대상으로 형제자매관계를 연구한 Furman과 Lanthier(1996)는 개인의 성격특성은 온정보다 갈등과 더 자주 연합된다고 보고하고 정서적으로 안정되고 신뢰롭고 예의바른 개인은 갈등적이거나 부정적인 형제자매관계를 경험할 가능성이 적다고 보고하였다. 그들은 성격특성 중 성실성과 호감성이 형제자매관계의 온정과 정적 상관을 이루고 같

등과는 부적 상관을 이룬다고 보고하고 이 두 가지 성격특성은 형제자매관계를 예측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고 주장하였다. 대학생을 대상으로 형제자매관계와 성격의 5요인 모델과의 관계를 연구한 Lanthier(2007)는 개인의 성격특성이 형제자매관계의 온정과 갈등 변량의 상당한 양(26-39%)을 설명할 수 있다고 제안하고 5요인 성격특성 중 호감성이 형제자매관계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성격특성이라고 일관성있게 주장하였다. Lanthier(2007)에 의하면, 높은 호감성을 갖는 형제자매들은 더 높은 수준의 온정과 더 낮은 수준의 갈등 및 경쟁을 경험한다. 한국 대학생을 대상으로 형제자매관계를 연구한 장휘숙(2009)의 연구에서도 남자 대학생들의 형제자매간의 온정은 외향성과 호감성에 의해 유의하게 설명되고, 여자 대학생들의 형제자매간의 온정은 외향성에 의해 유의하게 설명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갈등은 남성들의 경우 호감성과 경험에 대한 개방성에 의해 그리고 여성들의 경우에는 호감성과 정서적 불안정성에 의해 유의하게 설명되는 것으로 나타나 호감성은 남녀 모두의 형제자매관계에 영향을 주는 일관성 있는 성격특성으로 볼 수 있었지만 형제자매관계에 영향을 주는 구체적인 성격요인에서는 연구자에 따라 차이가 있음을 보여주었다.

형제자매관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또 다른 요인은 Furman과 Lanthier(1996)의 제안대로 부모-자녀관계이다. Broddy와 Stoneman, McCoy 및 Forehand(1992)는 형제자매간의 온정은 부모-자녀간의 긍정적 상호작용과 연합되고 형제자매간의 갈등은 부모-자녀간의 처벌적 상호작용과 연합된다고 보고하여 가족관계가 형제자매관계의 질적 특성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McGuire와 McHale 그리고 Updeffraff(1996)도 적대적 형제자매관계를 갖는 아동들은 그들의 형제자매관계와

부모-자녀관계를 더 부정적으로 평정하였고, 부모 역시 결혼생활을 더 부정적으로 평정하여 형제자매관계와 부모-자녀관계 및 부부의 결혼관계가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들은 모두 아동의 형제자매관계를 연구하였기 때문에 연구대상자의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서도 여전히 부모-자녀관계가 영향을 줄 수 있는지는 분명하지 않다. 이에 따라 이 연구에서는 가족구성변인에 해당하는 형제자매의 성별과 성구성, 개인적 특성 중 성격특성 그리고 부모-자녀관계로서 부모-자녀간의 애착이 대학생들의 형제자매관계에도 영향을 주는지 그리고 그것들의 상대적 영향력은 어느 정도인지를 규명하려고 한다.

일찍이 아동기 형제자매관계를 연구한 결과들은 일관성 있게 형제자매관계는 아동의 사회적, 도덕적, 인지적 발달은 물론 우울, 불안, 문제행동과도 연결되어 있음을 보고하였으므로(Stocker, 1993), 형제자매관계는 대학생들의 발달에도 중요한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지금까지 형제자매관계 연구의 대부분이 아동기에 집중되어 왔고(Steelman, Powell, Werum, & Carter, 2002) 성인 형제자매관계를 연구한다고 할지라도 대부분 노인을 연구하였으므로(Allen, Blieszner, & Roberto, 2000) 이 연구에서는 청년후기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먼저 성별에 따라 그리고 형제자매의 성구성에 따라 형제자매관계의 온정과 갈등에서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하려고 한다. 형제자매의 성구성은 2명의 자녀를 갖는 가정의 대학생을 연구대상자로 표집하고 동성 형제자매와 이성 형제자매로 구분하였다. 이 때 자매쌍과 형제쌍은 동성 형제자매로 그리고 남매쌍은 이성 형제자매로 분류될 것이다. 이와 함께 Big Five 검사를 사용하여 성격특성을 측정하고 부모-자녀관계의 전형적 지표에 해당하는 어머니와 아버지 에 대한 애착을 측정하여 형제자매관계

의 온정 및 갈등과의 관계도 확인하는 동시에 형제자매의 성별과 성구성, 5요인 성격특성 그리고 어머니와 아버지에 대한 애착이 형제자매의 온정과 갈등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그리고 각 변인들의 상대적 영향력은 어느 정도인지 규명하려고 한다. 구체적인 연구문제들은 다음과 같다.

1. 성별에 따라 형제자매관계의 온정과 갈등에서 차이가 있는가?
2. 형제자매의 성구성에 따라 형제자매관계의 온정과 갈등에서 차이가 있는가?
3. 형제자매관계의 온정과 갈등은 5요인 성격특성 및 어머니와 아버지에 대한 애착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
4. 형제자매의 성별과 성구성, 5요인 성격특성 및 어머니와 아버지에 대한 애착은 형제자매관계의 온정과 갈등에 어떤 영향을 주며, 온정과 갈등에 미치는 각 변인의 상대적 영향력은 어느 정도인가?

방 법

연구대상

동성 형제자매쌍과 이성 형제자매쌍을 구성하기 위해 심리학 개론을 수강하는 학생들 중에서 2명의 자녀가 있는 가정의 대학생들이 연구대상자로 표집되었다. 불성실하게 응답하거나 응답을 누락한 학생들을 제외하고 전체 492명(남: 312명, 여: 180명)의 대학생들이 최종분석에 포함되었다. 연구대상자들의 평균연령은 남학생 21.83($SD=2.439$)세, 여학생 19.17($SD=1.364$)세였다. 연구대상자들은 동성 형제자매관계를 갖는 학생(318명, 44.5%)과 이성 형제자매관계를 갖는 학생(273명, 55.5%)으로 구분되었고 설문은 심리학 개론 수업시간을 이용

하여 담당교수에 의해 실시되었다. 자료수집은 2008년 11월 10일부터 약 10일간 이루어졌다.

측정도구

형제자매관계 질문지

장휘숙(2009)이 제작한 형제자매관계 질문지가 사용되었다. 전체 30문항을 포함하는 이 질문지는 온정과 갈등의 두 가지 차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 중 온정 차원은 18개의 문항(예: 나는 나의 중요한 일을 형제자매에게 이야기 한다)을 그리고 갈등차원은 12개의 문항(예: 나는 형제자매를 자주 비난한다)을 포함하였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까지 5점 리커트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온정 차원에서의 높은 점수는 형제자매들이 따뜻하고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음을 의미하는 반면, 갈등 차원에서의 높은 점수는 형제자매관계가 갈등적, 부정적임을 의미한다. Cronbach α 로 계산한 이 질문지의 내적 일관성 계수는 온정 요인 .933 그리고 갈등 요인 .834였다.

성격척도

성격특성을 측정하기 위하여 John과 Donahue 및 Kentle(1991)이 개발한 Big Five 성격검사가 사용되었다. 외향성, 호감성, 성실성, 정서적 불안정성 및 경험에 대한 개방성의 다섯 가지 성격차원을 포함하는 이 검사는 원래 44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요인분석결과 호감성에서 요인부하량이 낮은 한 개의 문항이 제외됨으로써 전체 43개의 문항(외향성 8문항, 호감성 8문항, 성실성 9문항, 정서적 불안정성 10문항 그리고 경험에 대한 개방성 10문항)이 사용되었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까지 5점

리커트 척도로 구성되었고 각 척도에서 점수가 높을수록 그러한 경향을 더 많이 지니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 연구에서 Cronbach α 로 계산한 내적 일관성 계수는 외향성 .836, 호감성 .739, 성실성 .770, 정서적 불안정성 .800 그리고 경험에 대한 개방성 .814였다.

애착 척도

어머니와 아버지에 대한 애착은 Armsden과 Greenberg(1987)에 의해 개발된 척도에 기초하여 제작된 Paterson과 Field 그리고 Pryor(1994)의 IPPA(Inventory of Parent and Peer Attachment)가 사용되었다. 원래의 IPPA는 어머니와 아버지를 분리하지 않고 부모 문항과 동년배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Paterson 등(1994)의 IPPA는 어머니, 아버지 그리고 동년배를 분리하여 각 25문항씩 동일한 내용을 질문한다. 이 연구에서는 어머니와 아버지에 대한 애착을 측정하여야 하므로 어머니 문항과 아버지 문항만을 사용하였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항상 그렇다’(5점)까지 5점 리커트 척도상에 응답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원래의 IPPA는 신뢰, 의사소통 그리고 소외의 하위요인을 포함하나 요인분석 결과 요인들이 뚜렷하게 구분되지 않아 하위척도들을 무시하고 전체점수로 계산하였다. Cronbach α 로 계산된 이 척도의 내적 일관성 계수는 어머니에 대한 애착 .917 그리고 아버지에 대한 애착 .933이었다.

결 과

1. 성별에 따른 형제자매관계의 온정과 갈등에서의 차이

성별에 따라 형제자매관계의 온정과 갈등에서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성별을 독립변인으로 하고 온정과 갈등을 종속변인으로 하여 다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1은 성별에 따른 온정과 갈등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제시한다.

다변량분석을 실시하기 전에 먼저, Box's M과 Bartlett 구형성 검증을 실시한 결과 Box's M=5.957, $F_{(3, 463770.1)}=1.976$, $p>.05$, Bartlett's 구형성 검증 $X^2_{(2)}=30.223$, $p<.001$ 로서 다변량분석의 가정이 충족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변량 분석 결과 Wilk's Lambda=.974, $F_{(2, 489)}=6.542$, $p<.01$ 로 성별에 따라 형제자매 관계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인 차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온정과 갈등 각각에 대하여 단변량 분석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표 2에 제시하였다.

표 2에 의하면, 성별에 따라 형제자매관계의 온정요인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 갈등요인($F_{(1, 489)}=12.235$, $p<.001$)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즉 남녀 모두 형제자매간에 유사한 정도의 온정을 경험하지만, 갈등에서는 여학생들이 남학생들 보다 더 큰 갈등을 경험한다고 해석할 수 있었다.

2. 형제자매의 성구성에 따른 온정과 갈등에서의 차이

형제자매의 성구성에 따라 형제자매간의 온정과 갈등에서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형제

표 1. 형제자매의 성별에 따른 온정과 갈등의 평균과 표준편차

성별	N	평균(SD)	
		온정	갈등
남성	312	3.41(.71)	2.01(.61)
여성	180	3.44(.82)	2.22(.65)
전체	492	3.42(.75)	2.09(.63)

표 2. 성별에 따른 온정과 갈등에 대한 변량분석결과

		변량원	자승합	df	평균자승	F	eta ²
온정	성별		.080	1	.080	.139	.000
	오차		281.780	490	.575		
	전체		281.860	491			
갈등	성별		4.793	1	4.793	12.235***	.024
	오차		191.950	490	.392		
	전체		196.743	491			

* $p < .05$, ** $p < .01$, *** $p < .001$ 이하 동일함.

표 3. 형제자매의 성구성에 따른 온정과 갈등의 평균과 표준편차

형제자매의 성구성	N	평균(SD)	
		온정	갈등
동성 형제자매	219	3.53(.79)	2.08(.64)
이성 형제자매	273	3.33(.71)	2.09(.62)
전체	492	3.42(.75)	2.09(.63)

자매의 성구성(동성 형제자매와 이성 형제자매)을 독립변인으로 하고 온정과 갈등을 종속변인으로 하여 다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3은 형제자매의 성구성에 따른 온정과 갈등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제시한다.

다변량분석을 실시하기 전에 먼저, Box's M과 Bartlett 구형성 검증을 실시한 결과 Box's M=3.037, $F_{(3, 78080036)}=1.008$, $p > .05$, Bartlett's 구형성 검증 $X^2_{(2)}=25.863$, $p < .001$ 로서 다변량분석의 가정이 충족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변량 분석 결과 Wilk's Lambda=.983, $F_{(2, 489)}=4.216$, $p < .05$ 로 형제자매의 성구성에 따라 형제자매 관계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인 차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온정과 갈등 각각에 대하여 단변량 분석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표 4에 제시하였다.

표 4에 의하면, 형제자매관계의 온정($F_{(1, 489)}=8.410$, $p < .01$)요인에서는 형제자매의 성구성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나 갈등요인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즉 동성의 형제자매들은 이성의 형제자매들 보다 형제자매간에 더 큰 온정을 경험하고 갈등에서는 동성 및 이성 형제자매들간에 차이가 없다고 해석할 수 있었다.

3. 형제자매관계와 5요인 성격특성의 관계

형제자매간의 온정 및 갈등과 5요인 성격특성(외향성, 호감성, 성실성, 정서적 불안정성, 경험에 대한 개방성) 그리고 어머니와 아버지 에 대한 애착의 관계를 확인하기 위하여 상관분석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표 5에 제시하였다.

형제자매관계의 온정 및 갈등과 5요인 성격특성의 관계를 확인한 결과, 표 5에 제시된 바와 같이 5요인 성격특성 중 호감성과 성실성은 형제자매관계의 온정요인과는 유의한 정적 상관(호감성: $r=.265$, $p < .001$; 성실성: $r=.211$, $p < .001$)을 그리고 갈등요인과는 유의한 부적 상관을 보였으며(호감성: $r=-.338$, $p < .001$; 성실성: $r=-.170$, $p < .001$), 정서적 불안정성은 온정요인과는 유의한 부적 상관($r=-.231$, $p < .001$)을 그리고 갈등요인과는 유의한

표 4. 형제자매의 성구성에 따른 온정과 갈등에 대한 변량분석결과

변량원	자승합	df	평균자승	F	eta ²	
온정	형제자매의 성구성	4.756	1	4.756	8.410**	.017
	오차	277.105	490	.566		
	전체	281.860	491			
갈등	형제자매의 성구성	.024	1	.024	.060	.000
	오차	196.719	490	.401		
	전체	196.743	491			

정적 상관($r=.222, p<.001$)을 나타내었다. 그러나 외향성($r=.237, p<.001$)과 경험에 대한 개방성($r=.151, p<.001$)은 형제자매관계의 온정요인과만 유의한 정적 관을 나타내었다. 즉 더 높은 호감성과 성실성을 지니고 더 낮은 정서적 불안정성을 지닐수록 형제자매관계는 더 온정적이고 덜 갈등적이며, 또한 더 높은 외향성과 경험에 대한 개방성을 지닐수록 더 온정적인 형제자매관계를 경험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형제자매관계의 온정 및 갈등과 어머니와 아버지에게 대한 애착의 관계를 확인한 결과 어머니에 대한 애착과 아버지에게 대한 애착 모두 형제자매관계의 온정요인과는 유의한 정적 상관(어머니: $r=.439, p<.001$; 아버지: $r=.316, p<.001$)을 그리고

갈등요인과는 유의한 부적 상관(어머니: $r=-.217, p<.001$; 아버지: $r=-.211, p<.001$)을 보여 어머니와 아버지에게 대한 애착이 클수록 더 온정적이며 덜 갈등적인 형제자매관계를 경험한다고 해석할 수 있었다.

4. 형제자매의 성별과 성구성, 5요인 성격특성 및 어머니와 아버지에게 대한 애착이 형제자매관계의 온정과 갈등에 미치는 영향

형제자매의 성별과 성구성, 5요인 성격특성 및 어머니와 아버지에게 대한 애착이 형제자매관계의 온정과 갈등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범주변인인 성별은 남

표 5. 형제자매관계의 온정과 갈등, 5요인 성격특성 및 부모에 대한 애착의 상관분석결과(N=492)

	5요인 성격특성					부모에 대한 애착	
	외향성	호감성	성실성	정서적 불안정성	경험에 대한 개방성	어머니에 대한 애착	아버지에 대한 애착
온정	.237 (***)	.265 (***)	.211 (***)	-.231 (***)	.151 (**)	.439 (***)	.316 (***)
갈등	-.027	-.338 (***)	-.170 (***)	.222 (***)	.042	-.217 (***)	-.211 (***)
M(SD)	3.17 (.72)	3.58 (.47)	3.09 (.55)	3.12 (.66)	3.20 (.65)	3.60 (.58)	3.32 (.67)

표 6. 형제자매관계의 온정요인에 대한 성별과 형제자매의 성구성, 5요인 성격특성 및 어머니와 아버지 에 대한 애착의 위계적 회귀분석 결과

단계	독립변인	B	Std. Error	Beta	t값	Tolerance	VIF	R ² Change
Step 1	성별	.169	.066	.107	2.544*	.861	1.162	.001
Step 2	형제자매의 성구성	-.205	.062	-.134	-3.310***	.930	1.076	.019**
Step 3	외향성	.106	.048	.101	2.219*	.739	1.353	.130***
	호감성	.183	.075	.114	2.451*	.705	1.418	
	성실성	.079	.068	.058	1.160	.620	1.613	
	정서적불안정성	-.002	.057	-.002	-.040	.608	1.644	
	경험에 대한 개방성	.066	.050	.056	1.326	.848	1.179	
Step 4	어머니에 대한 애착	.435	.062	.336	7.037***	.674	1.483	.111***
	아버지에 대한 애착	.066	.054	.059	1.230	.666	1.501	

성을 0으로 여성을 1로, 그리고 형제자매의 성구성은 동성 형제자매를 0으로, 이성 형제자매를 1로 더미 코딩한 후, 1단계에서는 성별을 투입하고 2단계에서는 형제자매의 성구성을 그리고 3단계에서는 다섯 가지 성격특성을 투입하였으며 마지막 4단계에서는 어머니와 아버지 에 대한 애착을 투입하여 각각의 설명량을 확인하였다. 위계적 회귀분석 결과 온정($F_{(9, 482)}=18.165, p<.001$)과 갈등($F_{(9, 482)}=10.182, p<.001$) 요인 모두에서 회귀모형이 유의하였다. 표 6과 표 7에 온정과 갈등요인 각각에

대한 회귀 분석결과를 제시하였다.

우선 형제자매관계의 온정요인에서는 표 6과 같이 형제자매의 성별($\beta=.107, p<.05$)과 성구성($\beta=-.134, p<.001$) 및 5요인 성격특성 중 외향성($\beta=.101, p<.05$)과 호감성($\beta=.114, p<.05$) 그리고 어머니에 대한 애착($\beta=.336, p<.001$)이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확인되었고, 이 요인들은 온정요인 전체변량의 26.1%를 설명하였다. 이 중 성별은 형제자매관계의 온정요인을 0.1% 설명하였으나 유의하지 않았고, 형제자매의 성구성은 1.9%를

표 7. 형제자매관계의 갈등요인에 대한 성별과 형제자매의 성구성, 5요인 성격특성 및 어머니와 아버지 에 대한 애착의 위계적 회귀분석 결과

단계	독립변인	B	Std. Error	Beta	t값	Tolerance	VIF	R ² Change
Step 1	성별	.144	.059	.110	2.437*	.861	1.162	.024
Step 2	형제자매의 성구성	-.060	.055	-.047	-1.087	.930	1.076	.001
Step 3	외향성	-.004	.043	-.004	-.083	.739	1.353	.121***
	호감성	-.372	.067	-.278	-5.597***	.705	1.418	
	성실성	.018	.060	.016	.298	.620	1.613	
	정서적 불안정성	.061	.051	.064	1.200	.608	1.644	
	경험에 대한 개방성	.108	.044	.111	2.451*	.848	1.179	
Step 4	어머니에 대한 애착	-.084	.055	-.077	-1.523	.674	1.483	.014
	아버지에 대한 애착	-.071	.048	-.075	-1.474	.666	1.501	

추가적으로 설명하였으며, 5요인 성격특성 중 외향성과 호감성은 13.0%를, 마지막으로 어머니에 대한 애착은 11.1%를 추가적으로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나 어머니에 대한 애착은 형제자매관계의 온정요인에 대한 상대적 영향력이 가장 크다고 해석할 수 있었다. 결국 형제자매가 동성이며, 높은 외향성과 호감성을 지니고 어머니에 대해 높은 애착을 지닐 때 더 온정적인 형제자매관계를 경험할 것으로 예측할 수 있었다.

형제자매관계의 갈등요인에서는 표 7에 제시된 바와 같이 성별($\beta=.110, p<.05$)과 5요인 성격특성 중 호감성($\beta=-.278, p<.001$) 및 경험에 대한 개방성($\beta=.111, p<.05$)이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확인되었고, 이 요인들은 갈등요인 전체변량의 16.0%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성별은 형제자매관계의 갈등요인을 2.4% 설명하였고 5요인 성격특성 중 호감성과 경험에 대한 개방성은 12.1% 추가적으로 설명하였다. 그러나 형제자매의 성구성과 어머니와 아버지에 대한 애착은 각각 0.1%와 1.4%를 추가적으로 설명하였으나 유의하지 않았다. 4가지 변인 중 호감성은 형제자매관계의 갈등요인에 대한 상대적인 영향력이 가장 크다고 해석할 수 있었다. 결국 여성일수록, 낮은 호감성과 높은 경험에 대한 개방성을 지니고 있을수록 더 갈등적인 형제자매관계를 경험한다는 예측을 할 수 있었다.

논 의

이 연구는 두 자녀 가정의 남녀 대학생들(492명)을 동성 형제자매와 이성 형제자매로 구분하고 형제자매의 성별과 성구성(동성 및 이성)에 따라 형제자매관계의 온정과 갈등에서 차이가 있는지, 형제자매관계의 온정과 갈등은 5요인 성격특성 및

어머니와 아버지에 대한 애착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그리고 형제자매의 성별과 성구성, 5요인 성격특성 그리고 어머니와 아버지에 대한 애착은 형제자매의 온정과 갈등에 어떤 영향을 주며 각 변인들의 상대적 영향력은 어느 정도인지를 규명하려고 하였다. 이를 위해 형제자매관계 질문지와 Big Five 성격검사 및 어머니와 아버지에 대한 애착을 측정하는 IPPA가 사용되었다.

연구결과 형제자매관계의 온정요인에서는 성차가 없었으나 갈등요인에서는 여학생들이 남학생들보다 더 크게 경험하였고, 동성 형제자매들은 이성 형제자매들보다 더 큰 온정을 경험하였으나 갈등에서는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또한 형제자매관계의 온정요인은 성격특성 중 외향성, 호감성, 성실성 및 경험에 대한 개방성과는 유의한 정적 상관을, 정서적 불안정성과는 유의한 부적 상관을 보였으나 갈등요인은 호감성 및 성실성과는 유의한 부적 상관을, 정서적 불안정성과는 유의한 정적 상관을 나타내었다. 어머니와 아버지에 대한 애착 또한 온정요인과는 유의한 정적 상관을 그리고 갈등요인과는 유의한 부적 상관을 나타내었다. 즉 더 높은 호감성과 성실성을 지니고 더 낮은 정서적 불안정성을 지닐수록 형제자매관계는 더 온정적이고 갈등은 더 적으며, 더 높은 외향성과 경험에 대한 개방성을 지닐수록 형제자매관계는 더 온정적인 동시에 어머니와 아버지에 대해 높은 애착을 지닐수록 형제자매관계는 더 온정적이고 더 적은 갈등을 경험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형제자매관계의 온정과 갈등요인에 미치는 각 변인의 설명량을 확인하기 위하여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형제자매가 동성일수록, 높은 외향성과 호감성을 지닐수록 그리고 어머니에 대해 높은 애착을 지닐수록 더 온정적인 형제자매관계를 경험한 반면, 여성일수록 그리고 낮은 호감성과 높은 경험에

대한 개방성을 지닐수록 더 갈등적인 형제자매 관계를 경험한다는 예측을 할 수 있었다. 흥미롭게도 형제자매의 성별과 성구성, 성격특성 그리고 어머니와 아버지 에 대한 애착 중 형제자매관계의 온정 요인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어머니에 대한 애착이었고 갈등요인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개인의 성격특성이었다.

이 연구에서 나타난 갈등요인에서의 유의한 성차는 선행연구들과 일치하는 결과였으나(장휘숙, 2009; Stocker, Lanthier & Furman, 1997), 갈등점수의 평균치를 비교해보면 남녀 모두 5점 척도 상에서 2점 정도로 나타나 한국 대학생들의 형제자매관계는 여성들의 경우에도 심각할 정도로 갈등적이지 않다는 추론을 할 수 있었다. 그러나 형제자매관계의 온정요인에서 성차의 부재는 Spitz와 Trent(2006) 혹은 Connidis(2001)의 연구와 일치하지 않을 뿐 아니라 여성들은 가족연결망을 조직하고 유지하는 역할을 한다는 Eriksen과 Gerstel(2002)의 주장과도 상치되는 결과였다. 문제는 이 연구의 연구대상자들은 19-21세의 대학생들이었으나 Spitz와 Trent(2006)의 연구대상자들은 19세부터 50대까지의 성인들이었고 Connidis(2001)의 연구대상자들은 노인들이었으므로 온정 요인에서 나타난 선행연구들과의 차이는 발달단계적 특성에 기인한 차이로 해석될 수 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대학 연령에서는 형제자매간의 온정에서 남녀간에 차이가 없으나 결혼하고, 취업하고, 자녀를 양육하는 성인기 동안은 물론 신체적 노화와 은퇴, 배우자의 사망을 경험하는 노년기 동안 형제자매간의 온정과 갈등에서 남녀간에 차이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Schmeekle, Giarusso 및 Wang(1998)도 형제자매간의 유대가 전생애 동안 변화한다는 것을 지적한 바 있으므로 연령에 따라 남성과 여성의 형제자매관계가 어떻게 변화하는지

를 추적할 수 있는 종단연구를 통해 다시 확인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동성 형제자매들이 이성 형제자매들보다 더 큰 온정을 경험한다는 이 연구의 결과는 Furman과 Buhrmester(1985)나 Riggio(2000)의 연구와 일치하는 동시에 Akiyama와 Elliott 및 Antonucci(1996)의 성 공통성의 원리(principle of sex commonality)를 지지하는 결과였다. 성 공통성의 원리란 동성의 형제자매쌍들이 이성의 형제자매쌍들보다 서로 더 가깝고 애정적이라는 의미로서 자매와 형제들이 남매들보다 더 가깝다는 것이다. 동성의 형제자매들은 서로 많은 특성들을 공유할 수 있기 때문에 이성의 형제자매들보다는 더 가깝고 온정적인 관계를 경험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노인들의 경우 자매쌍이 가장 가깝고 그 다음이 남매쌍이며 형제쌍이 가장 가깝지 않다는 연구도 있으므로(Wilson, Calsyn & Orlofsky, 1994) 앞으로의 연구에서는 형제, 자매, 오빠-여동생, 그리고 누나-남동생쌍을 구분하여 온정과 갈등에서의 차이가 확인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더욱이 시간경과와 함께 형제자매의 성구성에 따른 차이도 변화될 수 있으므로 각기 다른 쌍조합들을 종단적으로 추적하는 작업도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 연구에서도 성격특성은 형제자매관계의 질적 특성을 예측할 수 있는 중요한 변인이었다. 특히 높은 호감성과 성실성을 지닐 때 온정적 형제자매 관계가 이루어지고 호감성과 성실성이 낮을 때 갈등적 형제자매관계를 경험하여, 호감성과 성실성은 형제자매관계를 예측하는 가장 중요한 성격특성이 라는 Furman과 Lanthier(1996)의 주장과 일치하였다. 그러나 외향성과 경험에 대한 개방성 및 정서적 불안정성도 형제자매관계의 온정이나 갈등과 유의한 상관을 보여 한국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연

구한 장휘숙(2009)의 연구와 일치함으로써 문화에 따라 형제자매관계에 미치는 성격특성의 영향이 달라질 수 있음을 시사하였다. 더욱이 이 연구에서 확인된 형제자매관계의 온정요인과 갈등요인에 대한 성격특성(호감성과 외향성)의 설명량은 12-13% 정도여서 Lanthier(2007)가 보고한 26-39%와는 차이를 보였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아마도 한국인의 형제자매관계는 개인이 지니고 있는 성격특성의 영향도 받지만, 그 외에 개인의 인지적 특성이나 사회적 특성 그리고 부모-자녀관계 외에 부부관계나 조부모-부모관계와 같은 다른 가족관계들이 큰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미래에는 형제자매관계에 영향을 주는 한국 문화에서의 특징적인 변인들을 찾아내는 연구도 수행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흥미롭게도 어머니에 대한 애착과 형제자매의 성구성은 형제자매관계의 온정차원에만 영향을 주고 형제자매의 성별과 성격특성은 갈등차원에만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나 형제자매간의 온정은 형제자매간의 관계나 어머니와의 관계로부터 영향을 받는 반면, 갈등은 개인의 성별이나 성격특성 같은 개인적 속성이나 특성의 문제임을 시사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개인의 성격특성은 온정보다 갈등과 더 자주 연합된다는 Furman과 Lanthier(1996)의 주장과 일치함은 물론 부모가 자녀를 공평하게 대우함으로써 부모-자녀관계가 좋을 때 형제자매들은 애정적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는 Updegraff, Thayer, Whiteman, Denning 및 McHale(2005)의 주장과도 일치하였다. 여기에 덧붙여 Stocker와 Lanthier(1997)의 주장과 일치되게, 형제자매의 성별과 성구성은 형제자매관계의 온정과 갈등의 극히 적은 변량을 설명할 뿐이어서 이 연구는 형제자매관계의 온정은 어머니에 대한 애착의 영향을 가장 크게 받고 갈등은 성격특성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었다.

자녀 수가 감소하고 한 자녀 혹은 무자녀가 선호되는 현실에서 앞으로의 세대는 형제자매관계를 경험하지 못할 수도 있지만, 이 연구는 일생동안 우리가 경험하는 다양한 관계 중에서 지금까지 많이 연구되지 못한 형제자매관계를 연구했다는 점에서 그리고 형제자매관계를 연구한다고 할지라도 아동기와 노년기 형제자매관계에 대한 연구가 주를 이루는 상황에서 청년후기 대학생들의 형제자매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확인하려고 시도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우리는 자주 부모의 자녀에 대한 편애가 형제자매관계에 큰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지만(Updegraff, 등, 2005), 형제자매에 대한 부모의 태도나 행동은 형제자매간의 온정차원에만 영향을 줄 뿐 형제자매간의 갈등은 형제자매들이 지니고 있는 개인적 특성 때문이라는 것이 이 연구를 통해 밝혀질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이 연구의 또 다른 의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참 고 문 헌

- 장휘숙(2009). 대학생의 형제자매관계와 성격특성 및 정신병리적 증상간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22(3), 33-48.
- Akiyama, H., Elliott, K., & Antonucci, T. C. (1996). Same-sex and cross-sex relationships. *Journals of Gerontology: Social Sciences*, 51, 374-382.
- Allen, K. R., Blieszner, R., & Roberto, K. A. (2000). Families in the middle and later years: A review and critique of research in the 1990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62, 911-926.

- Armsden, G. C., & Greenberg, M. T. (1987). The Inventory of Parent and Peer Attachment: Individual differences and their relationship to psychological well-being in adolescence.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16*(5), 427-454.
- Bedford, V. H. (1995). Sibling relationships in middle and old age. In R. Blieszner & V. H. Bedford (Eds.), *Handbook of aging and the family* (pp. 201-222). Westport, CT: Greenwood Press.
- Broddy, G. H., Stoneman, Z., McCoy, J. K., & Forehand, R. (1992). Contemporaneous and longitudinal associations of sibling conflict with family relationship assessments and family discussions about sibling problems. *Child Development, 63*, 391-400.
- Connidis, I. A. (2001). *Family ties and aging*. Thousand Oaks, CA: Sage.
- Dunn, J., Slomkowski, C., & Beardsall, L. (1994). Sibling relationships from the preschool period through middle childhood and early adolescence. *Developmental Psychology, 30*(3), 315-324.
- Dunn, J., Stocker, C., & Plomin, R. (1990). Assessing the relationship between young siblings: A research note. *Journal of Child Psychology and Psychiatry, 31*, 983-991.
- Eriksen, S., & Gerstel, N. (2002). A labor of love or labor itself: Care work among adult brothers and sisters. *Journal of Family Issues, 23*, 836-856.
- Ernst, C., & Angst, J. (1983). *Birth order: Its influence on personality*. New York: Springer-Verlag.
- Furman, W., & Buhrmester, D. (1985). Children's perceptions of the qualities of sibling relationships. *Child Development, 56*, 448-461.
- Furman, W., & Lanthier, R. (1996). Personality and sibling relationships. In G. Brody (Ed.), *Sibling relationships: Their causes and consequences*. Norwood, NJ: Ablex 127-146.
- John, O. P., Donahue, E. M., & Kentle, R. L. (1991). *The Big Five Inventory—Versions 4a and 5a*.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Berkeley, Institute of Personality and Social Research.
- Lanthier, R. P. (2007). Personality traits and sibling relationships in emerging adults. *Psychological Reports, 100*, 672-674.
- McGuire, S., McHale, S. M., & Updegraff, K. (1996). Children's perceptions of the sibling relationship in middle childhood: Connections within and between family relationships. *Personal Relationships, 3*, 229-239.
- Minnett, A., Vandell, D., & Santrock, J. (1983). The effects of sibling status on sibling interaction: Influence of birth order, age spacing, sex of child and sex of sibling. *Child Development, 54*, 1064-1072.
- Paterson, J. E., Field, J., & Pryor, J. (1994). Adolescents' perceptions of their attachment relationships with their mothers, fathers, and friends.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23*(5), 579-600.
- Riggio, H. R. (2000). Measuring attitudes toward adult sibling relationships: The

- lifespan sibling relationship scale. *Journal of Social and Personal Relationships*, 17(6), 707-728.
- Schmeeckle, M., Giarusso, R., & Wang, Q. (1998). *When being a brother or sister is important to one's identity: Life stage and gender differences*. Paper presented at the annual meeting of the Gerontological Society, Philadelphia.
- Spitze, G., & Trent, K. (2006). Gender differences in adult sibling relations in two-child families.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68, 977-992.
- Steelman, L. C., Powell, B., Werum, R., & Carter, S. (2002). Reconsidering the effects of sibling configuration: Recent advances and challenges. *Annual Review of Sociology*, 28, 243-269.
- Stocker, C. (1993). Siblings' adjustment in middle childhood: Links with mother-child relationships. *Journal of Applied Developmental Psychology*, 14, 485-499.
- Stocker, C. M., & Lanthier, R. P. (1997). Sibling relationships in early adulthood. *Journal of Family Psychology*, 11(2), 210-221.
- Stocker, C. M., Lanthier, R. P., & Furman, W. (1997). Sibling relationships in early adulthood. *Journal of Family Psychology*, 11(2), 210-221.
- Teti, D., & Ablard, K. (1989). Security of attachment and infant-sibling relationships: A laboratory study. *Child Development*, 60, 1519-1528.
- Updegraff, K. A., Thayer, S. M., Whiteman, S. D., Denning, D. J., & McHale, S. M. (2005). Aggression in adolescents' sibling relationships: Links to sibling and parent-adolescent relationship quality. *Family Relations: Interdisciplinary Journal of Applied Family Studies*, 54, 373-385.
- Wilson, J. G., Calsyn, R. J., & Orlofsky, J. L. (1994). Impact of sibling relationships on social support and morale in the elderly. *Journal of Gerontological Social Work*, 22, 157-170.

1차 원고 접수: 2009. 10. 01.

수정 원고 접수: 2009. 11. 09.

최종 게재 결정: 2009. 11. 09.

Characteristics of Sibling Relationships of College Students in 2-Children Families

Hwee-sook Jang

Department of Psychology,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This study examined whether there are differences in warmth and conflict of sibling relationships according to gender and constellation of siblings, whether there are any relations between the warmth and conflict of sibling relationships and Big Five personality characteristics and attachments to parents, and whether gender and constellation of siblings, personality characteristics and attachment to parents give any impacts on the warmth and conflict of sibling relationships with 492 college students. The results reveal female students have more conflicts with siblings than male ones and same sex siblings had more warmth than different sex ones. Warmth of siblings correlated significantly with five personality characteristics and conflict of siblings correlated significantly with agreeableness, conscientiousness and neuroticism. Also attachments to parents correlated positively with warmth and negatively with conflict of sibling relationships. In addition the person with same sex siblings, high extroversion and agreeableness and high attachment to mother had more warmth, while the women with low agreeableness and high openness to experience have more conflict with siblings.

Keywords: sibling relationship, warmth, conflict, personality characteristic, attachment